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寬植

水月觀音圖 臨模研究

Study on making a copy of the
Boddhisattva with Water and Moon

2004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繪畫科

傳統真彩畫專攻

咸甫炅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姜寬植

水月觀音圖 臨模研究
Study on making a copy of the
Bodhisattva with Water and Moon

위 論文을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繪畫科

傳統眞彩畫專攻

咸甫炅

威甫昷의 美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12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 회화는 불화라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불화(佛畵)는 고려시대(高麗時代) 불화에 비할 바 없이 다종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의 불화 중에서 조선적인 특징이 특히 잘 나타난 것은 색채와 선이다. 조선 초기의 색채는 화려하고 밝은 홍색 계통이 많지만 금색이 점차 사라지면서 찬란한 특징이 적어지며 점차 선명한 색채가 보인다. 조선 후기에는 색상이 전기보다 훨씬 다양해지면서 같은 홍, 녹색도 진하고 연해지는 등 채도와 명도가 각양각색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의 특징은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물결식 주름과 금 선묘가 사라지고 단순 명쾌한 선이 보편화 된다. 후기는 단순 명쾌하거나 유쾌하고, 활발한 선이 나타나고 다양해지면서 조선불화의 특징이 정립된다.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최고의 승려화가인 의겸(義謙)이 그린 <수월관음도>를 임모해 붓으로써 현존하는 조선불화의 채색기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임모 작업이 갖는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임모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 번째는 조선불화 제작 시 사용되는 초본(草本)을 실제로 만들어 붓으로써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는 원화의 색감을 맞추기 위한 색표(色表) 제작 과정이며, 세 번째는 비단매기이다. 비단매기 과정에는 쟁틀 만들기, 교반수(膠礬水) 바르기 등 임모 들어가기 전의 과정이다. 네 번째는 선 연습을 통한 선묘에 대한 이해에 과정과 먹선 긋기 과정 이다. 다섯 번째는 채색(彩色)작업으로서 석채와 염료의 사용법 및 금 개는 과정이다. 이러한 다섯가지 방법을 거쳐 조선시대 불화기법을 이해하고, 이에서 얻어진 결과를 앞으로 작업하는 데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수월관음도의 내용과 의미	1
2. 수월관음도의 도상적 특징	2
II. 수월관음도 임모연구	6
1. 초본 제작	6
2. 색표제작	7
3. 비단매기	11
4. 상초(上草)작업	22
5. 채색 작업	24
6. 표구 작업	32
III. 결론	34
참고문헌	35
도판	36
ABSTRACT	44

그림 목차

<그림1> 라이트 박스	7
<그림2> 명주 자르기	12
<그림3> 명주 건조법	13
<그림4> 염색 주머니 만드는 법	13
<그림5> 염색과정	15
<그림6> 명주 고정시키기는 법	16
<그림7> 명주 잇는법	16
<그림8> 쟁틀 만드는법	17
<그림9> 틀 매는법	18
<그림10> 교반수 만드는 과정	20
<그림11> 교반수 칠하는 법	21
<그림12> 선 연습	23
<그림13> 아교통과 접시, 스푼	25
<그림14> 봉채 쓰는법	26
<그림15> 편채 쓰는법	26
<그림16> 호분 개는법	27
<그림17> 석채 쓰는법	29
<그림18> 석채 굽는법	29
<그림19> 금 개는법	32

I. 서론

불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회화 가운데 하나이다. 불화는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선함만을 추구하는 예술이 아니라 불교적인 이념에 입각한 주제를 그리는 성스러운 예술이다.

불화가 미술 작품이라면 분명 아름다움을 표방한 그림의 일종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화가 지니고 있는 멋을 추출해 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화의 멋에 접근할 수 있는 미술적 소양과 종교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수월관음도의 도상적인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임도를 통해 전통적인 채색기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1. 수월관음도의 내용과 의미

<수월관음도>는 고려불화의 주요 도상으로 채택되어져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흔하지 않은 불화 중에 하나이다.

수월관음은 33관음(觀音)¹⁾ 중의 하나로서 하늘에 뜬 달이 물속에 비친 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생의 허무에서 발생한 고난을 구제하여 달관케 하는 사색적인 보살이다. 양류관음(楊柳觀音)이라고도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마치 버드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또한 백의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백의관음(白衣觀音)이라고도 한다. 수월관음은 물가의 바위에 수목(樹木), 대나무 등을 배경으로 하여 걸터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며, 주변에는 버드나무가 꽃힌 정병과 연꽃, 산호초가 묘사되기도 한다.

이 관음도는 주로 남인도의 바다에 면한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의 바위

1)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음의 변화하는 모습을 33가지로 나누어서 설하고 있다. 그러나 33이란 숫자상의 33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인도의 수 개념에서 무한수를 지칭한다

위에 반가좌(半跏坐)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 반가사유(半跏思惟)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꿈 또는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음신앙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발전하였는데, 관음보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²⁾과 『화엄경(華嚴經)』의 「입법계품(入法界品)」³⁾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관음보살은 남쪽의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에 거주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온갖 보배와 꽃과 과일도 풍부하고, 바다를 접하고 있다고 한다. 「입법계품」에는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찾아다니는 선지식(善知識)의 하나로 관음보살이 설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을 도설(圖說)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월관음도이다.

2. 수월관음도의 도상적 특징

의겸(義謙) 필(筆) <수월관음도>는 크기가 가로 105.5cm, 세로 143.7cm로, 현재 한국불교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1204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조 6년(1730)에 18세기 최고의 승려화가인 의겸이 그린 이 수월관음도는 당대 최고의 작품으로 일컬어 지는데, 의겸은 이외에도 숙종 29년(1703)에 제작된 경남 고성(興國寺) 수월관음도, 경종 2년(1723)에 제작된 전남 여수의 흥국사(興國寺) 원통전 관음보살도가 전해져 서로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다. 이 세 점의 작품은 수월관음도의 형식을 취하고 관음의 상호가 모두 예쁘게 묘사되고 있는 등 매우 흡사한 점을 보여주면서도 정병의 위치와 암좌

2)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친대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종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법화경』 28품 중에서 제25품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송나라 사효(思孝)가 알기 쉽게 풀이하여 쓴 것으로 크기는 세로 26cm, 가로 35cm이다. 보문품이란 「법화경」의 한 부분으로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구제에 관하여 이야기 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화엄경』이라고 부르는 불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으로, ‘대방광’이란 대승 곧 진리를 의미하고 ‘불화엄’이란 아름다운 연꽃으로 옥대(玉臺)를 장식하듯 보살이 여러 가지 꽃으로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를 장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화엄경』은 여러 경전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심오한 경전으로서, 부처님이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는 대승경전이다.

에 표현된 대나무 및 동자 등의 인물 배치에서 서로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의견이 불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동일한 초본을 바탕으로 하여 본을 뜬 뒤에 채색을 입히는 불화의 일반적인 제작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동일한 주제의 불화라 할지라도 똑같은 형태로 제작하기를 꺼려했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는 의견이 매우 뛰어난 화승(畵僧)이었음을 말해 준다.

의견은 18세기 전반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일부지역에서도 크게 활약했던 화승으로 30여점의 많은 작품이 전하고 있으며, 그의 화풍은 채인(彩仁), 공척(巨陟) 등에게 계승되었다.

의견 필 <수월관음도는>는 조선시대 관음도의 전형을 잘 따르고 있는 정면관 관음도로서, 고려시대에 많이 제작된 수월관음도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조선적으로 새롭게 변형시킨 작품이다. 부분적으로 도식적인 모습이 엿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밝고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정면을 향하고 있는 관음이 큰 원형광배에 싸여 넘실대는 파도속의 층암 위에 길상초를 깔고 그 위에 편한 자세로 가부좌를 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수월관음의 머리에는 큼직하고 넓은 보관⁴⁾이 씌어져 있는데, 이 관음보살⁵⁾의 보관에는 정각여래를 갖추고 있다. 고려시대의 상호는 후덕한 어머니 모습 같은데 비해 이 수월관음은 아름다운 여성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얼굴은 둥근 편이며 작고 가는 눈과 지극히 작은 입, 의젓하고 근엄한 표정에 자비의 미소를 띄고 있다. 예쁜 상호의 모습에 비해 신체가 건장하고 어깨가 벌어졌으며 하체가 커서, 가름한 얼굴과 대비를 이룬다. 얼굴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과 다소 다른

4) 보관이란 화관과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뜻한다. 보관은 고대 인도 귀인들의 머리장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살을 장엄하고 또한 보살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5) 보살이란 bodhisattva를 번역한 말로서 '보리 즉 깨달음을 탐구하는 자' 라는 뜻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유일한 부처로 인정하는 남방불교(소승불교)에서는 득도하시기 전의 석가만을 보살로 인정하지만, 북방불교(대승불교)에서는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다고 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를 모두 보살이라 일컫는다

모습이다.

목에는 목걸이를 하고 팔에는 팔찌를 끼웠으며 몸에는 영락(瓔珞)⁶⁾을 장식하고 있다. 몸에는 천의(天衣)⁷⁾를 둘렀는데, 천의의 색채는 녹색과 홍색으로 상호 대비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는 다소 퇴색되어 있다. 하의는 군의(裙衣)⁸⁾를 입는다. 입는 방법은 종파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통 허리에서부터 아래를 덮는 긴치마 모양의 옷을 입는다. 아름다운 구슬로 이루어진 목걸이 장식 좌우로 여러 가지 구슬 장식을 단 붉은 색의 띠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그 끝단은 물결치듯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경향은 가슴에서 대좌(臺座)로부터 내려오는 천의(天衣)의 복잡한 흐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배 아래 부분의 중앙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영락이 층암 아래로 파도치는 바다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허리띠는 풍성하게 매여 있다

미간에는 백호⁹⁾가 표현되어 있다. 수월관음의 광배¹⁰⁾는 두광¹¹⁾과 신광¹²⁾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두광은 마치 보름달처럼 원형으로 그려지고, 채색은 밝은 녹색으로 되어있어 화면에서 돋보이도록 처리되어 있다. 신광 또한 원형으로 그려져 있으나 배경색과 동일하게 채색되어 있으며 테두리에만 백색의 선으로 경계를 표현하고 있고 배경의 산수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 6) 영락은 진주, 옥, 금속 등을 끈으로 꿰어서 만든 것으로서 보살의 손, 발, 목, 가슴 등에 늘어뜨리는 장식구이다
 - 7) 천의는 보살과 천부상의 양어깨에서 팔꿈치를 휘감고 늘어 뜨린 긴 옷으로 장식적인 기능도 갖는다.
 - 8) 군의는 중국고대 의복의 일종으로서 불교 전래 이후 불, 보살이 걸쳤던 옷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달리 상의라고도 한다.
 - 9) 백호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32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미간에 하얗고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광명을 발한다고 한다. 좌우 눈썹 가운데 백옥 같은 빛이 있는 상을 가리키며 제3의 눈이라고도 한다.
 - 10) 광배란 불보살(佛菩薩)이 발하는 광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후광(後光)이라고도 한다
 - 11) 두광(頭光)은 머리 전체에서 발하는 빛을 말한다. 머리 부분에서는 특히 육계, 백호, 이마, 눈 등에서 빛이 난다고 하지만 백호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하는 빛이 가장 강렬하다. 두광을 표현하는 방법은 선, 태양과 같은 빛, 불꽃같은 빛으로 표현한다. 보통 원으로 하는데 중심이 백호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12) 신광(身光)은 몸에서 발하는 빛을 말한다. 따라서 몸을 중심으로 표현하게 된다. 두광과 신광을 따로 표현하거나 두광만을 표현하는 경우는 있으나 신광만을 표현하는 일은 없다. 두광과 신광을 다 표현할 때는 먼저 두광을 표현하고 그 밑으로 신광을 표현하여 두광이 우선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수월관음도는 독특한 색채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다른 어떤 색보다 붉은색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주재료를 이루고 있는 비단(絹)의 색이 바랬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관에서 시작하여 다리에 이르는 긴 선이 붉게 칠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록색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붉은색과 확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관음보살(觀音菩薩)의 오른쪽에는 버들가지가 꽃힌 정병(淨瓶)이 삼족대좌(三足臺座) 위에 놓여있고 그 위에는 극락조(極樂鳥)가 한 마리 앉아 있다. 그 아래에는 합장(合掌)하고 있는 선재동자(善財童子)¹³⁾가 배치되어 있다. 관음을 향하고 있는 선재동자가 화면의 좌측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수월관음도의 복부 오른쪽에 있는 정병 바로 하단에 묘사되어 있어 고려불화의 일반적인 경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재동자는 53선지식(善知識)을 찾아 남쪽으로 구도여행(求道旅行)을 시작하여 28번째로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의 관음보살을 찾아오는데, 이 선재동자의 모습에 그러한 구도자(求道者)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맨 하단에는 일렁이는 물결을 묘사하고, 관음보살의 왼쪽에는 짙은 대나무가 두 그루 보여 수월관음도의 도상적(圖像的)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이 수월관음도는 짜임새 있고 안정된 구도에 적색, 녹색, 청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온화한 느낌의 색채와 정교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세련된 필선, 단정하고 알맞은 얼굴표현과 신체비례, 바위면 처리의 회화성이 강한 표현 기법 등을 보여주는 매우 우수한 작품이다.

13) 선재동자는 불교신앙의 모범이 되는 구도자로서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오는 구도자의 이름이다. 그는 53명의 선지식(善知識)을 찾아 천하를 역방(歷訪)하다가, 마지막으로 보현보살(普賢菩薩)을 만나서 그의 십대원(十大願)을 듣게 되는데, 그 공덕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하여 입법계(入法界)의 큰 뜻을 이루었다고 한다

II. 수월관음도 임모과정

1. 초본 제작

[준비물]

원화 사진

라이트 박스 (light box)

트레싱지¹⁴⁾-(2절 사이즈)

0.3 mm샤프, 2B 연필, 지우개,

테이프(18mm×16m, 3M 제품), 노루지 3장

흰 장갑 (예식용 장갑)

수건 (작고 얇은 흰색)

초본을 뜯 때는 라이트 박스 위에서 뜯는다. 라이트 박스에서 뜯면 선묘가 확실하게 보여 선을 잘 뜯을 수 있다.

초를 뜯 때는 흰 장갑을 끼고 뜯는데 이는 손 기름이 트레싱지에 묻어 더러워지거나 종이가 땀으로 쭈글 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장갑은 엄지와 중지, 검지를 가위로 잘라내어 손끝의 감각이 둔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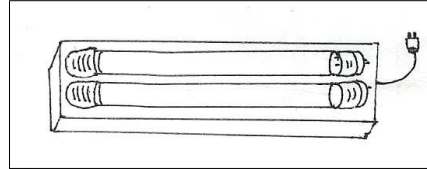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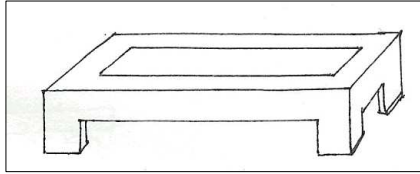
먼저 원화사진을 놓고 위에 트레싱지를 놓은 뒤 사방을 테이프로 붙인다. 그림의 끝점을 표시해 둔다.

초를 뜯 때는 트레싱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되도록 오랜시간 동안 뜯지 않는 것이 좋다. 이유는 라이트의 열기가 트레싱지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몇일 후 다시 뜯게 되면 트레싱지가 줄어들어 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본을 뜯 때는 연필은 2B를 쓰도록 하고 여러 개를 깎아 두고, 연필 끝은 예리하게 깎아서 정확하게 떼야 한다. 지우개는 제도용을 쓰는 것이 잘 위치한다. 선을 뜯 때 필선의 기준을 원화의 안쪽선으로 할 것인지, 바깥선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연필은 붓을 사용하듯이 하고 연필선 역시 먹 선을 긋는 것처럼 긋는다.

14) 트레팔지는 미끄럽기 때문에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 트레싱지가 더 좋다

의견 필 <수월관음도>는 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의 굵기를 그대로 뜬다. 대나무는 하나의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선의 두께를 이중선으로 그려준다.

<그림 1> 라이트 박스



만약 원화 사진보다 작은 사진을 이용하여 초를 뜨는 경우에는 트레이싱지에다 뜨고 난 뒤 원화 사이즈(100.5×130)로 확대시킨다. 노루지를 3장을 붙여 원화사이즈와 같게 만들고, 확대시킨 초 위에 노루지를 붙여 사방의 끝을 표시한 후 다시 뜬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책을 찾아보고 그려 나아간다. 원화를 보고 그릴 수 있을 때는 초를 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원화와 비교해가면서 고쳐 나간다. 암좌의 질감은 연필로 명암을 주면서 그리며 대나무는 굵은 선으로 그린다. <도 1>

2. 색표 제작

[준비물]

정품 틀-10호 사이즈, 3500원

오리나무 열매로 물들인 손 명주(임모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명주)

종이 테이프 (테이프를 붙인 후 물감을 올리면 깨끗하게 된다)

수건, 핀셋, 붓, 광목

임모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분의 색표를 만들어 원화와 비교한 후 임모에 들어간다. 색표를 만들고 임모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작품에 사용된 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색감을 느낄 수 있다. 원화의 색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만큼 산화되고 변색되었는지를 가늠해 보면서 원화

원래의 색을 유추해 나아간다. 색 표를 만들 때는 임모 시에 사용되는 견과 같은 견을 사용하며 교반수를 칠한 후 종이테이프로 칸을 나누어 채색한다. 색표를 제작할 때 무슨 물감을 사용하고 무슨 물감을 섞어서 사용했는지를 색표 밑에 적어놓아야 나중에 찾아서 색칠하기 편하다. 색표를 만든 뒤 박물관에 색표를 가지고 가서 다시 원화와 비교하며 색을 체크한 후에 색표의 색깔과 똑같이 수정하여 채색한다.<도 2>

① 육 색

[준비물]

대자, 쪽, 연지(봉채)- 각각 1개당 15000원,

(인사동 179-2 구하산방에서 구입 ☎ 02-732-9895)

등황- 30000원 (잘라서 팔기도 함. 구하산방에서 구입)

호분- 일본 호분, 최상급 35000원,

(인사동 39 성심필방에서 구입 ☎ 02-734-3327)

채색 붓- 양모 中-3000원

(인사동 건국주차장 본관 212호 서예백화점 ☎ 02-739-9500)

접시-등근 사기 접시로 무늬가 없는 것이 좋고 넓고 얇은게 좋다.

사기 물통, 아교물(5%)

수월관음의 육색은 대자 기운이 많이 도는 살색이다. 대자 빛이 나는 계통의 색을 혼합하여 여러 색의 육색을 만들어 본다.

먼저 대자와 호분을 섞어 연하게 한번 칠해보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칠해 본다. 대자에는 불순물이 많아 수비를 한 후 호분과 섞어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자와 호분, 연지를 섞어 한번에서 네 번까지 순서대로 칠해본다. 연지는 조금 넣어도 붉어지므로 조금씩 넣어서 색을 만든다.

세 번째는 대자, 호분, 연지, 쪽을 섞어 색을 만든 후 한번에서 네 번까지 순서대로 칠해본다. 쪽을 섞으면 붉은 기가 가라앉는 효과가 있어 육색에서는 많이 사용한다. <도 3>

② 주 사 (朱 砂)

[준비물]

주사 ㄱ일본 주-1g에 1000원

(종로구 견지동 108 송지방에서 구입 ☎ 02-733-8960)

ㄴ중국 주-1g에 250원 (서예백화점 www.seohwa.net에서 주문 가능)

표주-한통 15000원 (인사동 한지마트에서 구입 ☎ 02-722-2222)

등근 접시, 아교물, 뜨거운물

채색 붓¹⁵⁾-양모 中 3000원 (서예 백화점에서 구입)

주색¹⁶⁾에는 붉은빛이 많이 도는 주색이 있고 자줏빛이 많이 도는 붉은색이 있다. 어떻게 주를 수비하는가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기도 한다.

중국 주색은 자줏빛이 많이 도는 색이고, 일본주색은 붉은빛이 많이 도는 색이다. 중국 주색에는 주 1번부터 3번까지 나뉘어있고 일본 주색은 주1번과 2번으로 나뉜다. 두 종류의 주를 수비하여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대로 칠하기도 하고 주를 수비하지 않고 칠해보기도 한다.

③ 석 청 (石 靑)

[준비물]

천연 석청 1,2,3,4,5번-중국석채 1g에 450원 (서예백화점에서 구입)

천연 석청 1번- 일본석채 1g에 1000원 (구하산방에서 구입)

접시 (小子: 손바닥에 들어오는 크기) 10여개

아교물, 채색붓

15) 채색붓은 양모와 마모, 말갈기털을 혼합 한 것으로서 길이가 짧고 붓이 예리하지 않으며 약간 통통한게 특징이다.

16) 주색(Vermilion)은 적색 안료 중에서는 고대로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여온 것인데 기록에 보면 기원전 앗시리아나 아라비아의 조각에도 이 색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매우 좋고 다양한 주색이 제조되었다. 주색의 주성분은 황화수은이며 비중은 8.2 정도이다. 주의 종류도 아주 많으며 황색기가 많은 것부터 흑색에 가까운 것까지 다양하다. www.chentae.or.kr 참고. 이하 안료에 대한 설명도 모두 이에 의거했다.)

원화의 청색은 남색 빛이 도는 청색으로서 굵은 입자를 가진 석청이다. 서예백화점에서 파는 석청은 파란색이 많이 도는 청이고, 구하산방에서 파는 석청은 균청색이 도는 석청이다.

수월관음의 가사는 남색 빛이 나는 청색이고 입자가 굵은 석청이므로 석청¹⁷⁾ 1번을 굵는 시간을 달리하여 색표를 만든다. 석청 2번부터 5번까지 원색을 칠해보기도 하고, 구어서 칠하기도 하여 색표를 만든다.

④ 석 록(石綠)

[준비물]

석록 1,2,3,4,5번- 중국석채 1g에 300원

(서예백화점에서 구입, ☎ 02-739-9500)

동근 접시, 아교물, 채색붓

원화의 녹색은 밝고 선명한 녹 빛이다. 석록은 서예백화점에서 파는 석록을 사용하였다. 석록¹⁸⁾ 1번부터 5번까지 원색을 칠해 보기도하고 굵는 정도를 달리하여 색표를 만든다. 색표를 만들 때 넉넉하게 물감을 만들어 놓고 원화와 같은 물감의 두께로 올려야 임모 제작 시 수월하다.

⑤ 배경색

[준비물]

17) 석청은 암채색의 천연 균청으로서 진품은 매우 고가여서 좋은 것은 순금 가격과 비슷하다. 원석은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라고 하며 보석에 속하는 남동광이라는 광석이다. 이 원석은 햇볕에 변색되지 않는 아주 좋은 색채이다. 원석의 세계적 산지는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으로 아주 좋은 색상의 원석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는 합성 균청이 생산되는데, 일반적으로 쓰기 좋고 값도 싸고 색상도 좋다. 그러나 품질에 따른 등급이 있으니 잘 선택하여 써야한다.

18) 녹청색은 공작석(Malachite Green)을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암채색이다. 입자가 크면 진한 암록색이 되고 입자를 곱게 하면 벽록색이 된다. 이 암채색은 고가이므로 현재는 화학적 합성안료가 생산되고 있는데 별로 변색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혼색으로 유사한 색을 낸 저질의 안료도 많이 있으므로 일단 자체시험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자, 쪽, 연지(봉채)-각각 개 당 15000원(서예 백화점에서 구입)
 대자(편채)- 6g에 1800원 (서예 백화점에서 구입)
 채색붓, 접시 10개
 비단 (물감을 걸러 내는데 사용한다)

배경은 밝으면서도 가라앉은 대자 빛이 많이 도는 색이다. 대자¹⁹⁾와 연지²⁰⁾, 대자와 쪽²¹⁾, 대자 (편채)와 연지, 쪽을 혼합하여 연하게 한번 칠해보기도 하고, 두 세번 칠해보기도 하여 색표를 제작한다. 편채를 많이 넣으면 그림이 반짝 거리기 때문에 조금만 넣는다. 배경 색표는 다른 표 보다 좀 더 크게 제작한다.

3. 비단매기

(1) 염색 과정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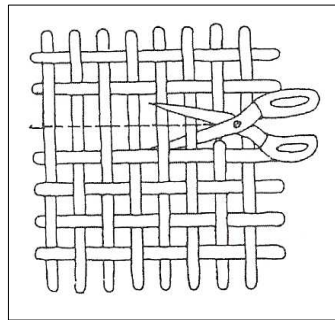
손 명주- 10000(1마)×4마=40000원
 (광장시장 경원상사에서 구입, ☎ 02-2263-7622)
 오리나무 열매- 한성대 테니스코트 장 뒤 야산에서 채취.
 (한약방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
- 19) 대자는 고급 안료로서 투명도가 뛰어나다. 비교적 변색이 적은 색으로 다른 색과 혼합하여도 변색되지 않는다. 동양화에서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색으로 흙과도 화합하여 많이 쓰인다. 주, 황토보다도 입자가 고운 편인데 좋은 것일수록 입자가 미세하고 색상도 좋다. 현재 좋은 대자는 주로 서독과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화학성분은 산화철과 망간이다. 가격이 싼 편은 아니며 석간주라고도 한다
- 20) 연지는 동양화 채색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색 중의 하나이다. 옛날에는 동물의 피를 연지색으로 사용한 일도 있었으나 동물의 피는 잘 변하므로 식물에서 특히 꽃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이 색의 특징은 색은 아주 아름다우나 산성이므로 약간 변색한다는 점이다. 약간의 변색은 있어도 동양화에서는 아주 선호하는 색이다. 인조색이 아니고 식물성 자연색이므로 가격이 비싸고 진품이라는 이유로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 21) 쪽은 본래 남색은 천연염료 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염료의 하나로서 영어로는 'indigo'라고 한다. 남색은 식물에서 채집하여 사용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극동 지방에서 자생하는 쪽 식물에서 주로 추출한다. 색 자체에 살균력도 있어서 옛날에는 의복의 염색에 널리 쓰였다.

탄산칼륨(K₂CO₃)- 종로3가 149 동진의료기에서 구입 (조금씩 팔지 않음)
 양동이- 20 l 들이 16000원 (스텐레스 재질이 튼튼하다)
 염색 통- 붉은색 플라스틱 통 8500원 (폭이 넓고 깊은 것으로 명주 폭이
 다 들어갈 정도로 큰 들통이어야 한다)
 염색주머니- 광목을 구입하여 만듭 (광목은 시장 포목점에서 구입)
 가스레인지, 양동이, 가위

① 명주 자르기

명주를 그리고자 하는 그림보다 양옆을 15cm 정도 여유분을 두고 자른다. 명주는 염색하게 되면 다른 견보다 많이 줄어들고 울이 잘 풀리기 때문에 여유분을 두고 잘라야 한다. 명주를 자를 때는 자로 쟈 다음 그 부분의 한 울을 빼낸 뒤 울이 빠진 자국을 따라 가위로 자르면 똑바로 잘라질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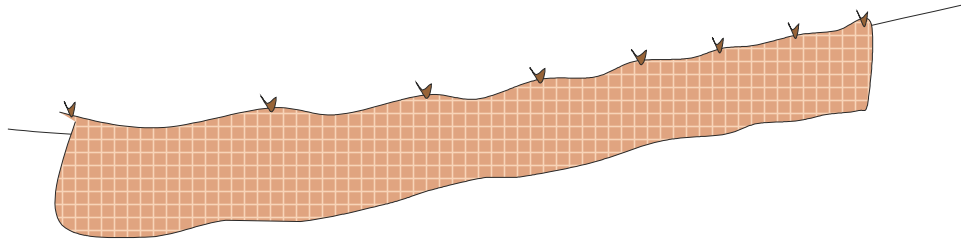
<그림 2> 명주 자르기

② 표백제와 풀기 제거하기

요즘 시중에서 파는 명주는 표백제나 풀이 먹여져 있다. 이것을 그대로 오리나무 열매로 물을 들이면 염색이 잘 안되거나 얼룩이 생기게 된다. 표백제나 풀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 생성되어 바탕을 빨리 삭게하여 장기간 보존할 때 딱딱해지고 색이 바랄 수 있어 좋지 않다.

먼저 미지근한 물에 명주를 1~2시간 정도 담근다. 너무 뜨거우면 명주가 줄어들어드는 경우가 생기고 차가우면 풀기가 잘 빠지지 않으므로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풀기를 뺀다. 두 번 정도 반복하면 누런 물이 나오는데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그런 다음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린다.

명주에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말릴 때 빨래 줄에서 명주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말릴 때 명주 끝을 약간 접어서 걸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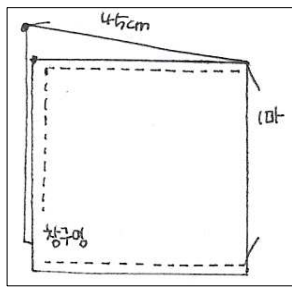
<그림 3> 명주 건조법

③ 염색주머니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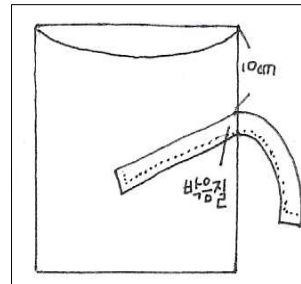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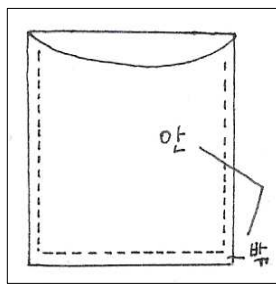
염색주머니는 오리나무 열매를 넣는데 필요하다. 가로 90cm, 세로 45cm의 광목을 준비한다. 광목을 반 접어 2장이 마주보게 한 다음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 해준다. 열매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염색주머니는 두 겹으로 만든다. 박음질한 광목을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 주머니를 만든다.

주머니에 달 끈을 만든다. 가로 90cm, 세로 8cm로 광목을 자른 후 두 겹으로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한 후 뒤집는다. 만든 끈을 주머니 세로에서 10cm정도에 박음질하여 달아준다.

<그림 4> 염색주머니 만드는 법



창구멍을 제외한 부분 박기 뒤집어 반을 접어 박는다



끈을 만들어 박음질한다

④ 염색하기

명주를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생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원화의 비단색과 비슷한 색으로 염색하여 사용한다. 보통 오리나무 열매를 사용하는데 원화보다 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오리나무 열매는 9-10월경에 열매를 채취하는데, 한약방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먼저 오리나무를 깨끗하게 씻어 염색 주머니에 넣는다.

열매를 염색 주머니에 넣은 후에 열매의 물 2배를 붓고 끓인다. 처음에는 강한 불로 가열하다가 끓으면 중간 정도의 불로 20분 정도 끓여서 충분히 우려낸다. 1차로 받아 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차례 더 끓여낸다. 오리나무 열매는 염액이 많아서 6회까지 끓일 수 있다.

밤색의 물이 우려나면 열매 주머니를 건져내고 들통에 옮겨 담는다.

염료가 준비 되면 명주를 넣어 부드럽게 문질러 기포가 생기지 않게 담가 둔다. 염료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염색이 쉽게 되지만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뜻한 정도에서 염색하는 것이 좋다. 염색 후 명주를 줄에 걸어 말린다. 명주 끝을 약간 접어 줄에 걸어야 명주가 떨어지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서늘한 곳에서 명주를 건조시킨 후 다 마르면 매염²²⁾을 시킨다.

들통에 물을 넣고 탄산칼륨을 넣는다. 탄산칼륨 양은 리트머스 종이로 pH를 측정하여 정하는데 보통 8~9정도가 적당하며 리트머스 종이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매염을 해도 된다.

탄산칼륨을 넣은 물에 약 1분정도 담가 두면서 염색 할 때와 같이 반복하여 문질러 준다. 염료를 탄산칼륨에 정착시킨 후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두 번 행구어 준다. 너무 많이 담구면 염색한 것이 많이 빠지므로 확인하면서 매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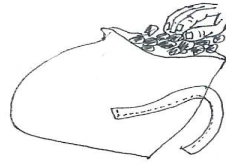
매염 후 명주끼리 겹치지 않게 줄에 널어둔다. 명주끼리 겹치게 되면 얼룩이 생기므로 겹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22) 매염제는 염료가 천이나 실에 잘 흡착되도록 도와주는 약품을 말한다. 대부분의 식물 염료는 다색성 염료이다. 그러므로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색의 견뢰도(빛이나 마찰에 대해 견디는 힘)도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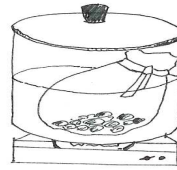
<그림 5> 염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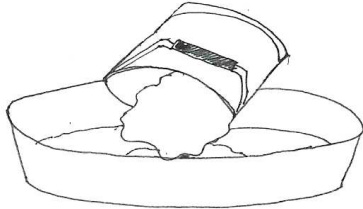
①오리나무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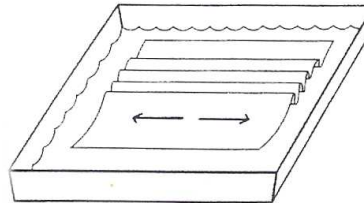
②주머니에 열매넣기



③염료 추출



④들통에 염료를 넣는다



⑤염색하기-화살표 방향으로 문질러준다

(2) 명주 잇기

[준비물]

명주, 압정, 틀, 분무기, 핀

명주실-염색한 명주와 색이 비슷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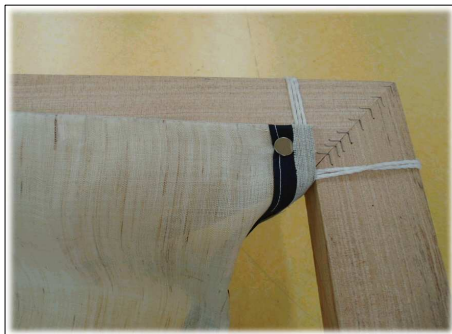
바늘-가늘고 끝이 뾰족한 것

명주는 매우 곱고 보드라우며 윤기가 돌고 크림색을 띄는 것이 좋다. 손 명주는 폭이 가로 37cm이므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명주를 이어서 그린다. 명주를 이을 때 재봉틀을 사용하여 겹쳐 박으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채색이 용이하지 못하고 표구할 때 이음새 부분에서 들 뜰 수 있기 때문에 작품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손으로 울과 울을 잇는 울 잇기를 하면 여러 폭을 이어도 한폭 처럼 매끈하게 이어진다. 명주를 이을 때는 명주와 비슷한 색을 가진 명주실로 울 잇기를 한다.

그림 그릴 틀을 바닥에 놓고 틀 밑에 벽돌을 양쪽에 놓아 받친다. 그런 후 명주2폭을 앞면과 앞면이 겹쳐지게 포갠 후 틀에 명주 한쪽을 압정으로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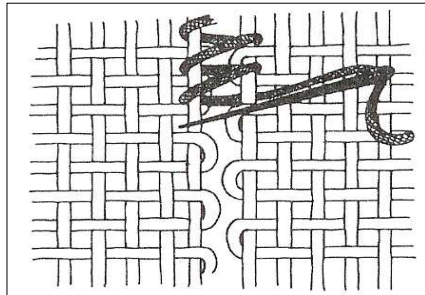
시킨다. 바느질하는 면이 뒷면이어야 한다. 명주를 적당히 잡아 당긴 후 핀으로 명주 두 쪽 사이를 간격을 두어 고정시키고, 압정으로 다른 한쪽을 고정시켜 바느질을 하면 울이 들어지지 않고 고르게 박을 수 있다. 바느질을 할 때는 최대한 한 올 씩 바느질을 한다. 너무 잡아당겨 바느질을 하게 되면 명주가 겹쳐지게 되므로 적당한 힘으로 잡아 당겨 감침질을 해야 한다. 실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분무기나 물 붓으로 바느질 할 곳에 물을 묻혀 바느질을 하면 바늘도 잘 들어가고 실도 엉키지 않는다. 바느질 후 뿔을 때 연결부분이 잘 펴져야 하는데 이때 둥근 접시로 바느질한 부분을 문질러 주면 잘 펴진다.

<그림 6> 명주 고정시키는 법



끝에 압정을 박고 시침핀으로
중간을 고정시킨다.

<그림 7> 명주 잇는법



명주 잇는 법(확대모습)



바느질한 것을 핀 모습

(3) 쟁틀 만들기

[준비물]

나왕 각목 4개 (3×4.5×165×130cm)

사포-(각목을 매끄럽게 할 때 사용한다)

직각자-(틀의 네면이 직각이 되어야 하므로 직각자가 꼭 필요하다)

목장갑-(두꺼운 것으로 준비한다).

목공용 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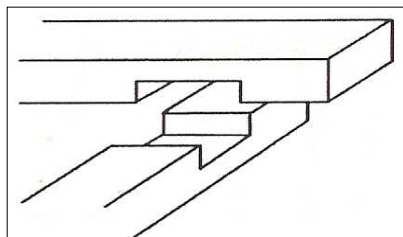
목재용 본드, 자, 연필,

쟁틀을 만들 때는 나왕 각목을 사용한다. 나왕 각목은 다른 나무보다 튼튼하여 흠을 팔 때 부러지는 위험이 없어 쟁틀을 만들 때 좋다. 각목의 사이즈는 교반수를 칠할 때 명주가 늘어나는 것과 재봉을 할 천의 여유분을 감안하여 명주의 길이보다 20cm정도 여유분을 두어야한다. 명주의 크기가 145×110cm이므로 각목의 길이는 165cm와 130cm의 것을 각각 2개 씩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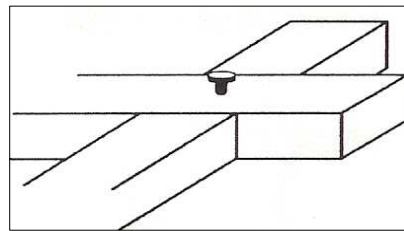
각목의 네 면을 깨끗하게 사포로 다듬는다. 양끝을 4cm 남기고 맞닿 각목의 폭의 반만큼 흠을 판다. 틀이 직각이어야 하므로 반을 표시할 때 직각자로 똑바로 표시해야 한다.

같은 식으로 네 개의 각목을 모두 흠을 파고, 각각의 흠에 맞추어 끼운다. 흠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4개를 다 짜 맞춘 후에 흠에 잘 들어갔는지 모양이 뺄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흠 부분에 본드를 바르고 나사못을 박는다.

<그림 8> 쟁틀 만드는 법



흠을 나무 두께의 1/2을 파고 끼운다



끼운 후 나사못을 박는다.

(4) 비단 매기

[준비물]

재봉틀

스텐레스봉- 지름5mm 짜리 4개, B봉 반강 한 개에 250원

(을지로 3가 고려철재에서 구입 ☎ 02-2266-3210)

면실- 2000원 (시장에서 구입)

송곳- (송곳 굵기가 위로 갈수록 두꺼워 지는 것으로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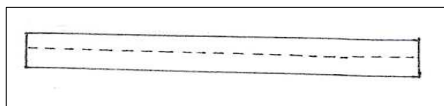
돛바늘, 압정, 광목

광목을 가로 5cm로 자른다. 세로는 명주의 크기보다 4cm정도 여유분을 두어 자른다. 광목을 반을 접어 다림질 후 바느질을 한다. 다리미가 없을 경우에는 등근 접시로 문질러 주면 반으로 접혀 바느질하기 쉽다. 광목 4개를 박음질한다. 이은 명주의 네면에 광목을 대고 바느질 한다. 광목은 명주보다 2~3cm정도 여유분을 두어 박는다. 모서리 부분은 당겨지기 때문에 되돌아 박기로 튼튼하게 바느질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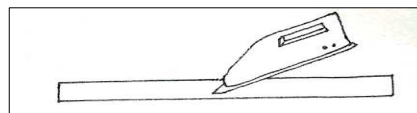
나무틀을 바닥에 놓고 네면을 벽들을 이용해 받친다. 틀 안에 준비된 명주를 펴놓고 봉을 끼운다. 송곳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다. 구멍을 뚫을 때 양쪽이 똑같은 간격으로 뚫어야 한다. 틀 한쪽을 엮을 수 있는 길이 만큼 실을 자른다. 틀의 3배 정도 실을 자르면 된다. 그런 다음 돛바늘을 이용해 나무틀과 명주를 잡아 맨 다음 엮어가다 마지막에는 매듭짓고 귀퉁이에 돌려 감아 압정으로 고정시킨다.

틀을 맬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며 틀의 공간이 서로 일정해야 한다. 맬 때 주의할 점은 봉이 휘지 않게 하며 명주는 다른 견보다 울이 잘 풀리므로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면 명주가 뜰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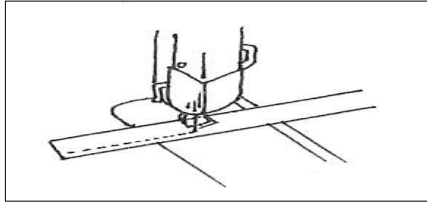
<그림 9> 틀 매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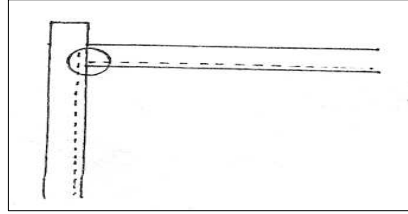
광목을 반을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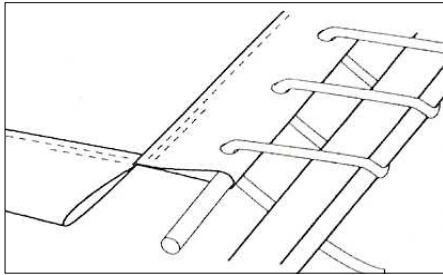
다림질 한다



재봉질 한다.



○봉을 넣을 모서리 부분을 남기고 박는다



돛바늘에 면실을 끼운 후 쟁틀에 묶는다



틀 매는법

(5) 교반수 (膠攀水) 칠하기

[준비물]

알 아교- 한 봉지 10000원 (인사동 한지마트에서 구입, ☎ 02-722-2222)

백반- 한 봉지 3000원 (한지마트에서 구입)

유발- 9m 2500원 (서예백화점에서 구입)

500ml 비이커- 4500원, 100ml 비이커-2500원 (동진의료기에서 구입)

유리막대- 한개 당 1000원 (동진의료기에서 구입)

천칭- 15000원 (동진의료기에서 구입)

평필- 2,5호: 4000원

(한지마트에서 구입, 붓털이 잘 빠지지 않는 것으로 구입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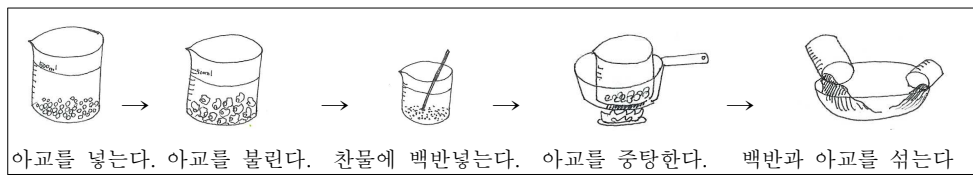
투명하고 큰 그릇, 건

교반수 칠하기 전에 명주 전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팽팽하게 당겨준다. 명주를 3폭을 이었기 때문에 팽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반수를 칠하게

되면 바느질한 틈에 교반수가 고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교반수를 만들 때 물은 비커에 아교²³⁾는 저울에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교반수용으로 쓸 때는 아교의 농도를 2%로 한다. 물 400ml를 비커에 넣고 알아교를 10g 달아서 비커에 넣어 한 시간 전에 불려 놓은 다음 질그릇에 넣어 중탕한다. 백반은 아교양과 10:3의 비율로 계산한 다음 백반을 유발에 곱게 갈아서 물 100ml가 든 비커에 넣고 찬물에 녹인다. 백반은 뜨거운 물에 녹이면 성분이 파괴되므로 반드시 찬물에 녹여야 한다. 아교물이 식으면 백반 물을 섞어 그릇에 담는다. 교반수는 깨끗해야 하므로 비단에 걸러서 사용한다.

<그림 10> 교반수 만드는 과정



교반수가 만들어지면 틀을 바닥에 놓고 평 붓으로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칠해준다. 교반수를 칠할 때는 좌에서 우로 가지런히 칠한다. 교반수 양은 고이지 않을 정도로 칠해주며 붓끝으로 칠한다.

앞면이 완전히 마르면 뒷면에서 앞면과 같은 방법으로 칠하여 건조시킨다. 두 번째 앞에서 칠할 때는 우에서 좌로 칠한다. 붓이 시작되는 부분에 교반수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번갈아 칠하게 되면 고르게 교반수가 칠해 진다.

교반수 작업은 그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반수를 지나치게 많이 칠하면 아교막이 두터워지므로 채색의 톤이 약간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고 그

23) 아교는 더운 물에 녹기 때문에 마르고 나면 물에 풀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수용성이 아니므로 마르고 난 후 채색에서도 색이 잘 번지지 않고 완성 후에 물로 배접하여도 그림이 상하지 않는다. 아교풀은 산양 등 동물의 피질, 어피, 물고기의 부레, 소뻘, 사슴뿔 등을 물에 여러 번 고아서 우려낸 것이다. 보통 2~3회 달여서 뽑아낸 것이 제일 좋고 어피나 사슴뿔로 우려낸 것을 제일로 치며 색깔이 맑고 연한 것일수록 좋다. 영국은 산양 아교, 독일은 토끼의 뱃가죽으로 아교를 만들고 일본은 사슴뿔로, 우리 나라는 주로 어피나 생선, 부레풀 혹은 소뻘로 아교를 만들고 있다. 아교는 막대 모양도 있지만 젤라틴처럼 분말 입자로 된 것이 쓰기에 편하므로 맑은 것을 선택하여 중탕기로 녹여 쓰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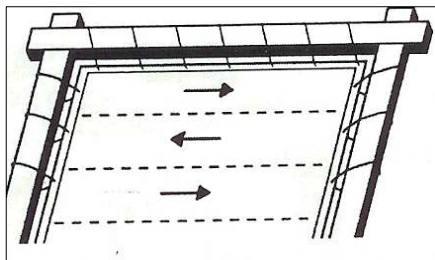
림을 완성한 후에 반짝거리 눈에 거슬린다. 백반은 번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백반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붓이 미끄러지게 된다. 채색이 두껍게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때는 교반수를 적게 하는 것이 물감이 잘 올라간다.

명주는 교반수가 올라간 정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백에 선을 그어 보고 바탕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교반수를 칠한다. 교반수는 약간 미지근한 상태에서 칠하면 고르게 칠해진다. 바탕재에 따라 농도나 횡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림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교반수를 칠하고 나면 먼지가 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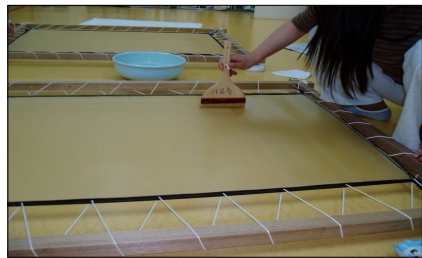
먼지가 묻으면 나중에 선이 잘 그어지지 않거나 배접했을 때 먼지 때문에 그림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교반수를 칠할 때마다 핀셋으로 먼지를 잡아낸다. 핀셋을 쓰다보면 끝이 달아 잘 안 잡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핀셋의 양쪽의 이를 잘 맞추어 고무줄로 감아 단단히 묶은 뒤 부드러운 사포 위에서 양면을 갈아 앞의 코 부분을 날카롭게 만든다. 한쪽으로 힘이 많이 실리게 되면 이가 맞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갈도록 한다. 갈아놓은 핀셋으로 먼지를 제거 한다.

교반수 그릇도 랩으로 씌어 놓아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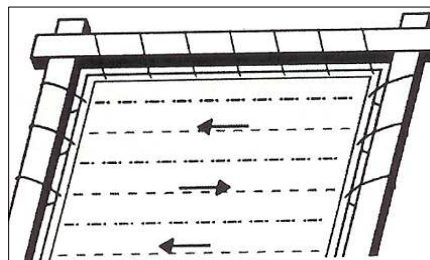
<그림 11> 교반수 칠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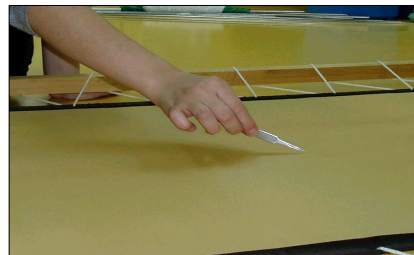
화살표 방향으로 칠한다 (첫번째)



교반수 칠하는법



두 번째 교반수 칠하기



먼지 제거하기

4. 상초(上草) 작업

작품명: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작 가: 의겸(義謙) 외 5명의 화사(畫師)

소 장: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보물 제1204호

재질·기법: 명주 채색

작품크기: 104.5×142cm

임모 시 원화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성질의 명주를 쓰고 비슷한 물감을 사용하였다. 원화의 상태가 양호하여 형태 묘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명주라는 색다른 바탕재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다.

(1) 선 연습

[준비물]

순지-140×200cm 1장에3000원

(종로구 190-1 백제한지에서 구입, ☎ 02- 734-3956)

면상필²⁴⁾- 大-5000원, 中-3500원

(종로구 견지동 32-3 대흥당에서 구입 ☎ 02-732-7356)

면상필- 진다리 붓中 5000원.

세필- 小 6000원 (한지마트에서 구입)

먹- 3성 석화묵 :30000원 (인사동 한지마트에서 구입)

벼루- 단계연 45000원

(종로구 견지동 68-18 전주지업사에서 구입 ☎ 02-730-8359)

물통, 접시

24) 면상필은 주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예리한 붓을 가리킨다. 사람의 눈썹, 머리카락 등의 세부 묘사에 사용되며 얼굴을 묘사하는 붓이라 하여 면상필이라 부른다. 초상화, 가는선 및 도안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황모(죽제비 꼬리털)로 만드는데 붓은 길지만 그 끝 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력이 좋고 강한 황모를 사용한다. 한국산 황모를 고급으로 친다.

임모에 들어가기 전에 선 연습을 하면서 수정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임모에 들어간다.

연필 초를 뜯 것을 복사한다. 복사한 후 화선지를 위에 대고 선을 뜬다.

선 연습 종이는 순지를 좋다. 연습을 할 때 먹 선이 변질 경우 교반수 순지에 선 연습을 한다. 얼굴선과 손, 발은 세필로 하고 옷 선과 장식선의 굵은 선은 진다리 붓이나 대홍당의 면상필 붓(中)을 사용한다. 대홍당의 면상필보다 진다리 붓 끝이 잘 모아져 굵은 선부터 가는 선까지 사용하기 편하다.

연습할 때도 명주에 올리는 것처럼 선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원화와 똑같이 연습을 하면 임모 제작 시 수월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 선은 많이 연습할수록 필력이 늘기 때문에 임모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다.



<그림 12> 선 연습

(2) 선 긋기

[준비물]

벼루- 뚜껑이 있는 것이 먹이 잘 마르지 않아서 좋다

MDF판 (두께 1cm)- 쟁틀 사이즈보다 사방으로 2cm 작게 제작

(가까운 목재상에서 주문제작 (140cm×110cm×3cm))

물통, 접시, 수건, 흰 장갑, 면수건, 먹

앞에서 선 연습한 순지를 MDF판에 붙인다. 판을 틀 밑에 놓고 밀착시키면 명주에 비쳐 보이게 된다. 초 뜨기 전에 틀이 흔들리지 않게 무거운 것으로 지탱시켜주고 무명예 손 기름이 묻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명주 위에는 수건을 깔고 선을 긋는다.

초를 뜰 때 쟁틀 위를 가로지르는 나무관을 올려 놓거나 방석을 올려놓고 그린다. 초는 위에서부터 뜨는 것이 좋으며 세부 표현 때는 왼쪽팔이 명주 위에 놓이므로 부드러운 면 수건을 깔아서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명주는 다른 견에 비해 흡수하는 성질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선이 약간 잘못 되어 면 봉으로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고 선이 점점 번지게 된다. 선의 농도 조절도 잘 해야 한다. 명주는 물기가 많으면 확 번지고, 물기가 없으면 선이 잘 그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월관음도는 부위에 따라 선의 굵기에 차이가 있는데 얼굴, 손, 발의 선은 가늘고 연한 선이므로 붓 끝부분만을 써서 예리한 선이 나오도록 한다. 긴 선은 굵은 먹 선으로 그으며 시작 부분은 붓머리가 확실하고 끝부분이 날카롭게 끝나는 모양의 선으로 탄력 있는 선묘로 그어 나아간다. 암좌는 물골법으로 갈필을 섞어 표현하며, 물은 대자와 먹을 혼합하여 선을 긋는다. 영락장식과 보관은 굵기의 차이가 없는 선묘로 한다. 대나무는 이중선이 아니라 두꺼운 한 선으로 그려 나아가간다.

이렇게 선을 뜰 때 밑의 초본에 얹매어 초가 경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채색작업

[준비물]

중국 석채²⁵⁾ (석녹1,2,3,4,5번 /석청1,2,3,4,5번)

봉채 (연지, 쪽, 대자, 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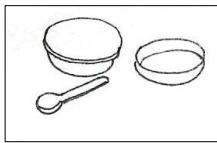
25) 석채는 옛날에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얻은 색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변색, 퇴색이 잘 되었다. 이와 달리 석채는 색있는 천연의 광석을 빻아서 만든 돌가루를 말하는 것으로 암채라고도 한다. 변색, 퇴색이 적고 투명하고 품위있는 색에 광택까지 있어서 좋은 재료이나 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구하기가 어렵고 색상이 많지 않다. 석채화는 무게가 있어 그림에 깊은 느낌을 주므로 동양화의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요즈음은 유화에서도 이 석채를 사용하여 독특한 색감과 입체감을 내는 실험적 작가들이 있다. 보통 안료로 된 물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석채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색을 혼합해도 개개의 석채색 그대로의 색감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처럼 혼합만 하면 여러 색상이 나오므로 깊이있는 그림이 된다. 일본의 석채는 입자가 커서 그림의 입체감을 극대화하여 독특한 효과를 낸다. 천연석채가 너무 비싸고 색수가 적으므로 현재는 인공석채가 생산된다. 대개 유리(glass)를 분쇄하든지 수정분말 등에 코발트, 동, 철, 망간 등의 금속 산화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색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 약 100색 가까이 되며 입자 크기도 다양하다. 내광성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편채 (대자, 표주)

아교물 (아교 농도 5%)

천칭, 100ml 비이커, 유리막대, 견, 접시, 물통, 유발

물감을 깔 때 사용하는 아교는 교반수를 만들 때의 아교 농도와 다르다. 물감 아교는 아교의 농도는 5%로 한다. 5%란 물 100ml에 아교 5g을 넣은 것을 말한다. 채색하는 순서는 호분, 주, 녹, 청의 순서로 채색한다. 채색 붓은 색깔별로 여러개 준비하여 물감마다 색이 섞이지 않게 한다. 붓마다 색표시를 해둔다. 석채를 개서 쓸 때 물의 양은 아교와 1:1로 해야한다.



<그림 13> 아교통과 접시, 스푼

(1) 배경색

선을 그은 후 전체적으로 배경을 칠해준다. 배경을 초뜨기 전에 칠하면 초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 호분을 칠한 후 배경을 칠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얼굴색이 진해지는 경우도 있다.

대자, 등황, 연지, 쪽 접시를 준비한다. 접시에 물을 약간 넣어 떡 같듯이 갈아준다. 붓채는 하루 이상이 지나도 물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붓채에는 약간의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견에 걸러 사용하면 깨끗한 물감을 사용할 수 있다.

대자 편채를 접시에 담는다. 접시에 편채가 감길 정도의 뜨거운 물을 넣는다. 편채는 찬물에 녹이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녹여야 한다. 그래서 편채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뜨거운 물을 부어 두는 것이 좋다. 대자 붓채, 등황²⁶⁾, 연지, 대자 편채, 쪽을 섞는다. 큰 접시에 섞은 물감을 넣은 후

26) 등황은 원래 인도, 중국, 태국, 실론 등에 자생하는 가르시닉(Garcinic) 망고스정과의 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색소인데, 분말상태로 유효용 기름과 혼합하면 약간 연한 금색같이 된다. 기름과 혼합하면 내구성이 좋으나 수채재료로 쓰면 내구성이 좋지 않으며 햇빛을 쬐면 퇴색한다. 약간

2/3정도 물을 넣은 후 아교물을 몇방울 넣는다. 아교물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물감을 올릴 때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교를 넣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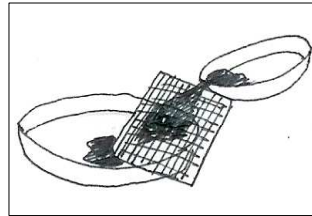
배경은 아주 연하게 7~8번 칠해준 후 신광 안에는 칠하지 않고 신광의밖만 2~3번 칠해서 색 차이를 준다. 배경은 얼룩이 잘 생기므로 연하게 여러번 칠하는 것이 좋다. 색을 빨리 내려고 색을 진하게 쓰다 얼룩이 생기면 고칠 수가 없으므로 주의한다.

명주를 3쪽을 이었기 때문에 폭마다 색이 다를 수 있다. 3쪽의 색의 균일하게 칠하며 바느질한 부분에 색이 고이지 않게 물감 양을 조절해서 칠한다. 배경 밑의 물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채색해 전체적으로 그라디이션을 준다.

<그림 14> 붓채 쓰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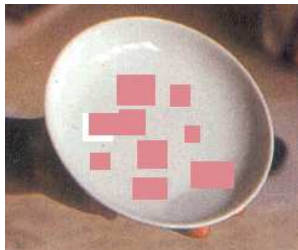


소량의 물을 넣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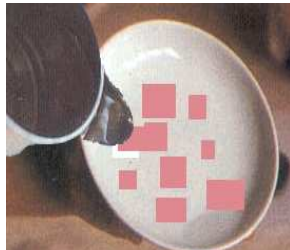


물감을 견에 거른다.

<그림 15> 편채 쓰는법



접시에 편채를 넣는다



뜨거운 물을 넣는다



10분후 손으로 갠다

독성이 있고 퇴색이 되는 색이라서 지금은 많이 쓰지 않고 대신 합성 유기안료를 쓴다

(2) 육색(肉色)

호분(胡粉)²⁷⁾은 유발에 넣어 곱게 갈아서 사용한다. 곱게 간 호분을 접시에 담아 아교 물을 넣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갠다. 호분을 개면서 물을 조금씩 넣어준다. 잘 섞이도록 손가락으로 여러차례 문질러 준다. 이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다른 접시에 천천히 따라내어 밑에 남은 거친 입자는 버리고 따라진 고운 입자만 사용한다.

접시에 물을 조금 넣고 대자(봉채)를 갈아준다. 대자는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해서 사용한다. 수비를 할 때는 견을 사용해도 되고 휴지를 이용해도 된다. 휴지를 사용할 때는 휴지가 물감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물을 적서 사용해야 한다.

쪽도 접시에 물을 넣고 갈아준다.

큰 그릇에 호분, 대자, 쪽을 조금 넣고 물을 넣은 뒤 색을 보면서 육색을 만든다. 명주는 배채를 하지않고 앞에서만 칠하기 때문에 연하게 만들어 여러번 칠한다. 육색은 흔적없게 칠해야 하며 지나치게 두터워서 안된다. 육색처럼 큰 부분을 칠할 때는 큰 붓을 이용하여 칠하면 붓 자국 없이 칠할 수 있다.

<그림 16> 호분 개는법



유발에 호분을 넣고 곱게 간다



호분을 접시에 담아 아교를 넣고 갠다.

27) 호분은 옛부터 현재까지 널리 알려진 백색의 대표적 안료이다. 호분은 다른 것에 비해 비중이 무거워서 다른 색과 혼합이 잘 되며 동양화에서 제일 인기있는 물감의 하나이다. 이 호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랜 시일이 지날수록 백색도가 더 좋아진다는 점이다. 호분의 주성분은 탄산석회이다. 원료인 조개껍질을 분말로 만든 후 물로 장시간 세척하여 물통에 넣고 침전시켜서 입자를 분류한다. 이렇게 침전시킨 것을 건조판 위에서 천연 건조시켜 제품을 만든 것이다. 색은 순백색일수록 그리고 가루가 고울수록 고급품이다. 제조사에 따라서 명칭, 호수 등이 틀리며 최상품은 특호라고도 한다. 3호, 4호까지는 그림용이고, 그 이하는 하급품인데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백색도가 떨어지므로 그림용으로 적당하지 않다.

(3) 주색

일본 주(朱)를 사용하였다. 주도 농도 5%의 아교물을 넣고 갠다. 물감을 개서 오랫동안 놓아두면 크게 세가지 색으로 나뉘는데, 맨 밑에는 자줏빛이 도는 주, 가운데는 붉은빛이 도는 주, 맨 위에는 노란빛이 도는 주가 나온다. 맨 아래에 가라 앉아 있는 것은 주 1번이며 가운데 있는 주는 주 2번, 맨 위에 떠있는 것을 주 3이라고 한다.²⁸⁾

수비하여 주1번으로 먼저 칠해 울을 막아놓고 남은 주 2, 3번으로 주 1번을 칠한 것 위에 칠한다. 주사는 붓에 묻힌 정도, 물의 양, 가라앉힌 정도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색깔의 변화가 다양하므로 반드시 접시 안에서 고르게 잘 저은 다음 칠한다.

더 붉은색의 주를 원할 경우 표주 편채를 사용한다. 편채는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면 잘 녹는다. 주로 보관과 동자의 하의, 보살의 하의에 채색한다. 주는 얼룩이 잘 생기기 때문에 연하게 여러번 칠해야 붓 자국이 안 생긴다. 하의를 다섯 번 정도 칠한다. 동자의 하의는 자줏빛이 도는 주이기 때문에 주2번을 칠한 후 연지를 연하게 여러번 칠해준다. <도4~5>

(4) 녹색

접시에 석녹 1번을 담는다. 아교 농도 5%의 아교물을 석채가 적셔질 정도로 넣는다. 아교 물을 넣은 후 중지로 석채가 찢덕거릴 정도로 문질러 준다.

석채는 입자가 있는 물감이다. 입자가 있는 물감이라고 해서 손으로 개지 않고 붓으로 저은 후 사용하면 나중에 배접을 할 경우나 백반물을 칠할 경우 물감이 다 떨어지게 된다. 찢덕거리는 석채에 소량의 물을 넣고 계속 문질러 준다.

석채에 아교물 양이 많으면 반짝 거리고 너무 작으면 물감이 떨어진다. 물을 넣을 때 아교와 1:1이 되도록 넣어줘야 한다.

석채에 갠 후 가만히 두었다가 위에 뜬 물을 버리고 쓴다. 석채를 구울때

28) 주(朱)를 수비(水飛)하여 입자의 굵기에 따라 나눌 때 화론(畫論)에서는 맨 아래의 가장 굵은 것을 삼주(三朱)라 하고, 중간 것을 이주(二朱), 맨 위의 고운 것을 두주(頭朱)라고 하였으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물감은 입자가 굵은 것부터 번호를 매겨 “주1,2,3”으로 되어있다.

는 먼저 구울 석채를 정한다. 석채를 국자에 넣고 강한불로 굽는다. 처음에는 색 변화가 없다가 국자가 불에 달궈지면 구워지는 속도가 빨라지므로 색을 잘 보며 굽는 것이 좋다. 석채를 구워서 사용할 때는 탄 그으름이 나오게 된다. 점시를 기우려 놓아 그으름 물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물감이 만들어지면 보살의 옷자락과 광배, 영락장식, 대나무에 차례대로 칠한다. 하의 가운데 색은 녹4번을 쪽색 빛이 나게 구어 칠한 후, 녹1번으로 도드라지는 부분을 채색한다.

동자의 옷은 녹1번을 칠한 후 쪽을 연하게 여러번 칠한다 <도6~8>

<그림 17> 석채 쓰는법



등근점시 준비한다



쓸 만큼 석채를 담는다



아교물을 넣는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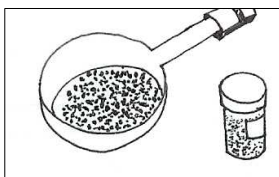


갠 후 물을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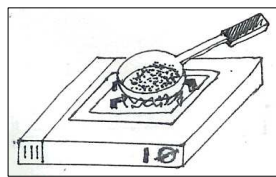


뜨 물을 제거한다

<그림 18> 석채 굽는 법



석채를 국자에 넣는다



국자를 흔들어 가면서 굽는다.

(5) 청색

청색도 녹색과 같은 방법으로 개서 사용한다. 석청 1번을 남색 빛이 날 정도로 굵는다. 구운 후 통에 담아 쓸 만큼 접시에 담아 아교를 넣어 갠 후 보살 옷을 채색한다. 정병은 검은빛이 도는 남색으로 석청 1번을 많이 구어서 칠한다. 구운 석채는 칠하기 전에 뜬 물을 제거하고 칠해야 한다. <도9>

(6) 색선

색선이 들어가는 부분은 녹색의 영락 장식 부분이다. 눈썹과 콧수염, 턱수염은 광배에서 쓴 녹색으로 그대로 칠하고 그 위에 먹 선을 긋는다. 녹이나 청은 물감이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색선을 쓰곤 한다. 이 수월관음도에는 청부분에 색선은 들어가지 않는데 녹 부분인 옷선은 진한 먹선으로 긋는다. 선을 그을 때 주의할 점은 석채가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먹선이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

호분으로 채색된 부분은 청을 진하게 구워 선을 긋는다. <도10~11>

(7) 세부 표현

신광에는 호분선을 긋는다. 선을 그은 후 안쪽에는 연한 호분으로 분염(粉染)해준다. 호분은 칠했을 때 농도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모서리에 색을 확인하고 칠하는 것이 좋다.

청색 가사의 안쪽은 호분을 연하게 칠한다. 그런 후 연지를 분염한다. 동자의 하의 안쪽 옷은 청으로 칠하고 녹으로 분염한다. 삼죽대자는 청4번을 구워 연하게 여러번 칠한다. 대나무는 녹 1번을 구워 칠한다. 전체적으로 같은 두께로 올리지 않고 위 부분은 연하게 한번만 칠하고 밑 부분은 두껍게 색을 올린다. 풀의 안쪽은 대자와 쪽으로 분염하고 암좌와 바위는 배경색보다 진하게 만들어 여러번 칠해준다. 파도는 연한 호분으로 분염해주고 물방울은 호분으로 칠한다. 영락장식 윗부분에는 호분으로 두껍게 점을 찍어 준다. <도12~15>

(8) 화기 (畵記)

세부적인 것을 다 끝내고 그림의 4면의 가장자리에 주색으로 굵기 4mm 정도의 테두리 선을 긋는다. 테두리선을 그은 후 테두리 밖의 사방으로 4면에 윗면과 양쪽면은 폭 2cm, 아래면은 폭 3cm 정도 호분을 칠해 흰색 띠를 그린다. 그리고 아래면은 흰색 띠 위에서부터 그 아래로 가로 32cm, 세로 7cm의 4각형을 만들어 주색을 칠해 화기(畵記)를 쓴다. 이 화기 부분의 양옆은 흰색 띠 밑에서부터 석녹 3번을 칠해 장식한다. 다 칠한 후 그림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춘다. 호분의 색이 밝거나 그림 안에 튀는 부분이 있을 경우 대자와 쪽을 연하게 섞어 전체적으로 칠한다. 그러면 그림이 적당한 톤으로 낮춰지고 화면 안에 조화가 생기게 된다. <도 16>

(9) 금 선

[준비물]

금분- 2g에 60000원

(동양금박에서 구입, 종로구 견지동 50-2 ☎ 02- 735-1600)

큰접시- 사기로 된 하얀색 등근 접시로 넓을수록 좋다

세필- 小: 4000원 (금선을 그을 때 사용하며 끝이 뾰족한 것이 좋다.)

황토 분체- 황토 8번 5g에 3500원

(종로구 견지동27-1 성문당에서 구입, ☎ 02-730-9742)

핫플레이트-(물기를 증발시키는데 사용함)

아교물

금선은 황토와 섞어 사용한다. 금선 사용법은 접시에 금가루를 넣고 아교를 조금씩 넣어 잘 개서 접시에 넓게 펴 놓는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손으로 저어준다. 가만히 두어 물을 제거한 후 핫플레이트 위에 물이 증발될 때까지 놓아둔다. 핫플레이트 온도를 높게 하면 깨질수도 있으니 약한 불로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3~4번 반복하면 금의 색감이 좋아지고 입자도 고와진다.

황토에 아교를 넣어 갠다. 갠 금과 황토를 섞은 후 아교를 약간 첨가해서 금선을 긋는다. 청가사와 주색 하의에 금선을 긋는다. 영락 장식에는 금선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 19> 금 개는법



접시에 금분을 넣는다



아교를 넣는다.



접시에 넓게 펴준다



뜨거운 물을 넣는다.



물을 증발시킨다



2~3번 반복한다

6. 표구

표구의 목적은 작품의 보존, 전시, 완상에 있다. 특히 역사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한 원상의 완전한 보전이야말로 표구의 중요성과 목적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에는 20년 이상이나 지하에서 썩힌 풀을 사용하여 표구를 하는데 이는 수세기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작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전시 감상을 위한 측면에 있어서는 작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배색, 촌법(寸法) 등으로 미적 조화를 살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배색과 촌법으로 표구하였을 경우, 작품의 내

용과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먼저 그림을 A4 사이즈로 사진을 현상한다. 사진을 가지고 비단집에 간다. 그림을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가면 좀 더 빨리 견을 구할 수 있다. 몇가지 계통의 색을 고른 후 색띠를 만든다. 색띠를 만들어 그림에 대본 후 그 중 어울리는 색을 고른다.

정한 견을 가지고 비단집에 가서 정한 견과 비슷한 계통의 색을 고른다. 비슷한 견 또한 색띠를 만들어 그림과 대본후 작품이 돋보이고 잘 어울리는 것을 골라 표구 집에 맡기면 된다.

액자로 표구 할 때 액자 틀 색과 그림 옆에 대는 견의 가로 세로 길이를 정해서 표구하면 된다.

석채의 경우 유리를 끼워 전시하게 되면 전시장의 조명 때문에 유리가 반짝거리고 손자국이 생겨 작품의 효과를 다 보여줄 수 없어 전시 중에는 유리를 끼우지 않는 것이 좋다. <도 17>

Ⅲ. 결 론

불화의 임모작업에 대해 정리해보면 우선 트레싱지에 초를 뜨고 오리나무 열매로 명주를 염색한다. 명주를 이은 후 재봉질한다. 틀을 맨 후 임모에 들어가기 전에 색표를 제작하고 선 연습을 한다. 연습과정 후에 명주에 초를 뜨고 채색에 들어간다.

고려시대에는 견에 불화가 제작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바탕재료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수월관음도 또한 명주에 제작된 그림이다. 명주는 불투명하고 폭이 좁아 세폭을 이어 그려야 하며 뒤에서 배채를 하지 않고 앞에서만 채색한다. 명주는 물감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잘 번지고 지워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1730년대에는 금니를 극도로 제한한 것이 특징인데 이 그림에서 금과 황토를 섞어 사용하였다.

이것은 고려 초나 조선 전기와 달리 조선후기에는 불화 시주 계층이 일반 민중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이다. 바위 또한 고려시대에는 외곽선에 채색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수묵기법을 이용해 바위의 질감을 표현해 더욱 사실감있게 표현하였다. 이 수월관음은 채색과 수묵기법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며 시대에 따라 채색법이나 금니의 사용법, 필선들이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조용진, 『채색화 기법』, 미진사, 1992
박정자, 『불화 그리기 (빛깔있는 책 57)』, 대원사, 2003
홍윤식, 『불화 (빛깔있는 책들 50)』, 대원사, 2003
편집부 편, 『조선불화(한국의미 16)』, 중앙M&B, 1984
박완용, 『한국 채색화 기법』, 재원, 2002

2. 논문

- 박소민, 「조선후기 초상화의 제작기법 연구」, 용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손광석, 「조선 전통 제작기법 연구」, 용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 인터넷 사이트

- www.chentae.or.kr 천태종
www.iartedu.com 한법경 미술교실
www.art21.com.ne.kr 유일화방
www.buddhistmuseum.co.kr 한국 불교미술관
www.kpaint.org 고려대학교 한국화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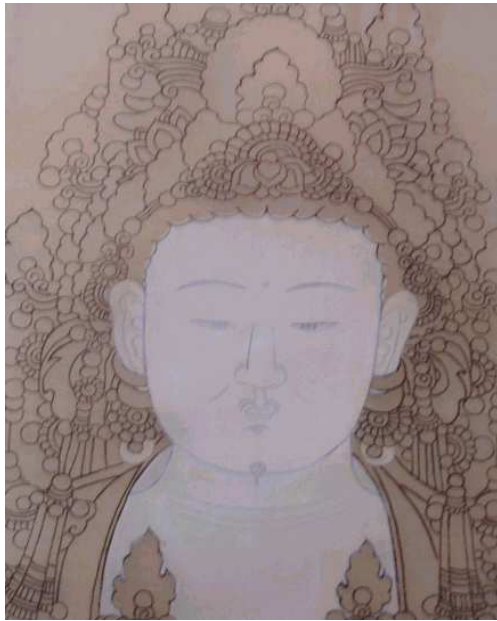
도판



<도 1> 초 뜨는 방법



<도 2> 색표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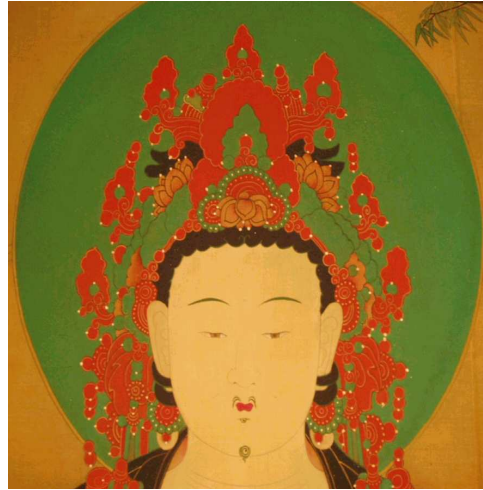
<도 3>호분- 육색 부분



<도 4> 주색-동자 하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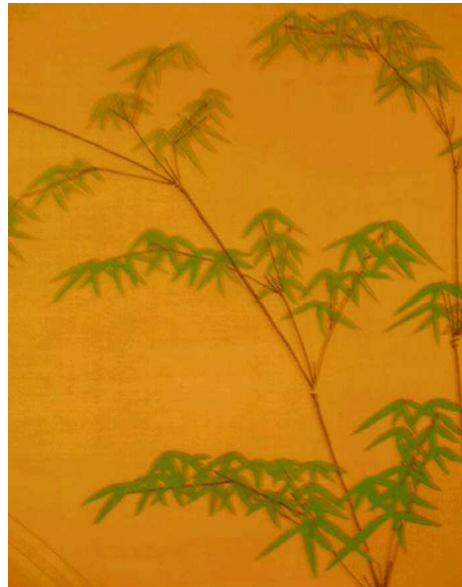
<도 5> 주색 5번, 녹2번 칠하는 과정



<도 6> 녹색- 광배 칠하기



<도 7> 녹색- 보살 옷자락 부분
 석녹 3번을 구어서 칠하고
 석녹 1번 약간 구어서 칠함



<도8> 대나무 칠하기
 녹색-석녹 1번 약간 구어서 밑에는
 두껍게 위는 연하게 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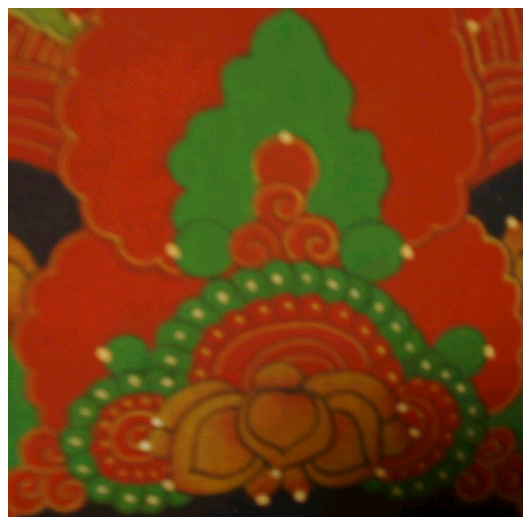
<도 9> 청색-정병 부분
선 긋기는 청1번을 오래
구어서 칠한다.



<도 10> 청색선, 금색선 부분
호분에는 청색 선을 긋고, 주색 옷에는
금선을 긋는다.



<도 11> 녹색, 먹선 부분
눈썹, 콧수염, 턱수염은 녹색을
긋고, 위에 먹 선을 긋는다



<도 12> 세부묘사- 호분 점 찍기
녹색 장식에는 호분으로 점을 찍어 준다



<도 13> 청색 가사 부분

호분으로 연하게 칠한 후 연지로 연하게 분염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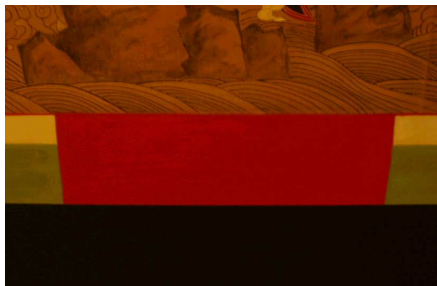
<도 14> 극락조 부분

주색, 녹색, 청색의 순으로 칠하고, 호분으로 깃털을 분염해 준다.



<도 15> 파도와 물결 부분

파도 밑은 먹으로 분염해주고, 물결은 호분으로 분염한다.



<도 16> 화기(畵記) 부분

화기는 주를 수비하지 않고 칠한다.



<도 17> 표구

청색 가사와 비슷한 색으로 표구



(1) 의겸(義謙) 외, <수월관음도> (原畫), 1730, 명주 채색, 104.5×142cm,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2) 함보경, <수월관음도> (임모), 2004, 명주 채색, 104.5×142cm



(3) <일월천도도>(일모), 2004, 비단채색, 각 80x116



(4) 함보경 <지장보살도> (임모), 2003, 비단채색, 104×55.6cm

ABSTRACT

Study on making a copy of the Boddhisattva with Water and Moon

Ham bo-kyoung

Major in Korean Traditional Color Painting

Department of Painting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most traditional painting of Korea is the Buddhist painting. The Buddhist painting of Chosun era has a various kind and a diverse variety in comparison to the Korea era. The color and the line are the mos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Chosun's Buddhist painting. The early days' color showed the magnificent and bright red type like the Korea era. However, the gold color gradually disappeared and showed the distinct color without the magnificent characteristics. In the later days of Chosun, the color became more various, that is to say, the same red and green became more rich and soft because there was a diverse change in saturation and brightness. In the early days of Chosun, Korea's style of the wavy wrinkles and the gold line drawing was disappeared and in the later days, the simple and clear line was become universalized. This simple and clear and joyful and lively kind of characteristics were took a triangular position as a Chosun's later Buddhist painting. The tracing picture of Suwolkwaneomdo of this thesis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ter Chosun' Buddhist painting very well. This thesis tries to study the existing Buddhist painting's coloring method of Chosun and discover the meaning of the tracing works through the tracing of Suwolkwaneomdo which was drawn by Eoykyoum who was the great monk painter in 18's century. Before the tracing, the contents and the meaning of Suwolkwaneomdo were studi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picture were observed. The tracing's procedure was categorized by five step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drawing paper which was used in Buddhist painting were studied through the real manufacturing. Second, it is the coloring sample procedure for the impression of a color in original painting. Third, it is the binding of silk. It contains the making of frame and the pasting of alum stone glue. Fourth, it is the understanding procedure about the line drawing through the line practice and the line drawing of chinese ink. Fifth, it is coloring procedure such as a deep and strong coloring, the way of using dyes and procedure of mixing gold. This procedure was represented by the pictures and the photos. The tracing was completed through these five steps. The results from these steps will be used for the future work.